

“근로자 건강관리 정착에



•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다원화된데서 착안

『저희 충북지부가 지역 단위 사업장 건강 검사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각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 관계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데서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신체검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 신규채용 건강진단 등이 그것이죠.』

지역단위 사업장 건강검진을 실시하게된 배경에 대한 허윤영 건협 충북지부 사업과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위생관계 사업장인 식품생산 공장의 경우는 특히 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기 신체검사, 보건사회부 소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 신입사원 건강진단 등 1년에 한사람이 여러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검진 때마다 채혈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의 낭비, 검사과정의 불편함을 대부분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계기 마련 ,,

(주) 삼립식품 충주사업본부건강검사의 현장을 찾아서

健協 충북지부는 지역단위사업장 건강검사 사업을 실시해 각 사업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 건강검진이 관계법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어 매년 3회이상의 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 1회로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만큼 낭비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 이 사업은, 1차로 200여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 건강검사를 맡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건협 충북지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해결하기 위해 한번의 체혈로 각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동시에 해줌으로써 제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라면서 『이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보조합과 충청북도, 그리고 언론매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건강관리 위한 보건교육도 병행

건협 충북지부 관내에는 청주,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1,2지구 의료보험조합 산하에 1,340여개의 산업체가 있는데, 건협 충북지부는 일차로 200여개소의 위생관계업체를 정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많은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200여개의 위생관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나



▲근로자 건강진단이 복잡화되어 있는 점을 발견, 건협충북지부는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에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검진 때마다 채혈해야 하는 번거로움, 비용의 낭비, 검사과정의 불편함을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허윤영 건협 충북지부 사업과장은 말한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라고 허과장은 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검사와 함께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어 국민 보건 의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단위사업장 건강검사는 건협 충북지부가 검진버스를 동원해 일정에 따라 사업장을 순회하며, 검사결과는 각 개인에게 개별 통보키로 되어 있다.

● 단일화된 건강검시 정말 반가운 일

기자는 이번 사업에 대한 검사대상자와 사업장의 호응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하고, 허윤영과장과 함께 청주 근교의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청주 사

업본부를 찾아가 봤다.

청주 시내에서 8km정도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자리한 (주) 삼립식품은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사원건강관리 모범업체로도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 건강진단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신체검사1회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2회등 1명이 1년에 평균 3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라고 김영성 총무과 보건담당계장은 말문을 연다.

『검사기관 지정에도 애를 먹곤 했지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한 신체검사는 관계법 계열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신입사원 건강진단은 기타 병원 등에서 시기를 맞추어 실시토록 해야했기 때문에 담당자나 근로자 모두가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그외에도 사업직과 현장직의 건강관리가 법제상 분류되어 있어 그 후속처리가 어려웠었죠.』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단지 제도상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 비용과 시간의 낭비, 생산성의 저하, 사원들의 편의 배제등의 문제를 초래해 왔다고 김계장은 말한다.

• 순회검진으로 근로자 편의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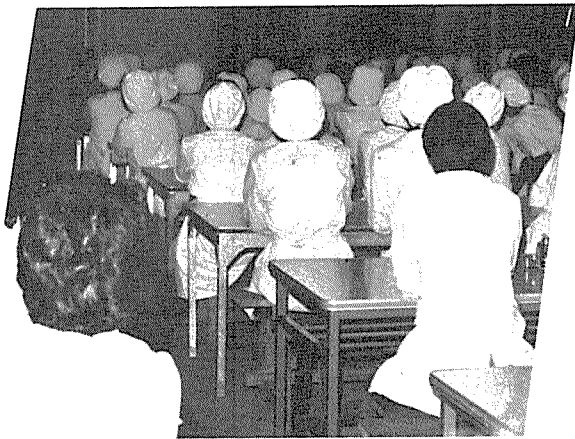
『저희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건강관리협회의 순회검진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동검진차량이 일정에 따라 각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편의도 도모되고 또 작업시간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웠던것은 복잡한 여러가지 검사를 한번에 처리해 줌으로써 저희들 업무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라는 그는, 전에는 근로자들이 여러번 반복되는 검사 때문에 귀찮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의식들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 이제는 건강검사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특히 검사과정과 검사이후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건협의 성실함을 고마워하기도 한다.



▲건협이 친절하고 성실한 검진태도, 사후처리의 완벽함이 협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었다고 말하는 김영성 계장



▲(주)삼립식품 총주사업본부는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곳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사원건강관리 모범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들의 사소한 질문에도 친절히 대답해주고 1,000여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꼼꼼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모르게 신뢰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개별 통보한 후 총괄표를 작성하셔서 전체 직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상 소견자에 대한 재검사, 관리를 위해 쏟아주셨던 관심 등, 모든 일이 끝난 후 돌아켜보았을 때 건강관리협회야말로 공신력있는 건강검사기관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삼립식품에서 수년을 근무했다는 한 근로자는, 『그동안 번거롭게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면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귀찮게만 생각했던 건강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해 건협 일원으로서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건협 충북지부는 앞으로 그동안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위사업장 건강검사를 정착시켜, 충북지역 건강증진의 기수가 되겠다고 말한다.

• 모든 사업장에 이 검사방법을 권유하고 싶다

한편 김영성계장은 『모든 사업장이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질서있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정착되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라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것에 세심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는 단 한사람의 이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그 건강한 모습 속에서 (주)삼립식품 근로자들의 건강한 모습과 함께 성큼 다가온 복지국가를 보는 듯했다.

한편 건협 충북지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가면서 지역 단위 사업장 건강검사를 확고히 정착시켜 충북지역의 건강증진의 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희연·글)